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높고 낮음 나아님 없기에 '유아독존'

15면에서 계속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소우주 소속성부러 발견을 해 보십시오. 내 몸통이 속에 수십 억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생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즉 자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마음과 자기 몸통이 속에 든 것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장공장 한 곳에서 파업을 일으키면 전체 공장이 쓰러집니다. 전체 공장이 쓰러지면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주인공 하면 색과 공이 들어 한이 그 모두를 한꺼번에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되돌려 놓는 거에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또는 거기서만이 내 몸통이 고쳐서 건강하게 끌고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풀려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풀려서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믿고 거기에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가 다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기와 무애행 알고싶어요

문 저는 평소에도 미조원상의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무심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스님께에서 그것은 옳은 참선이 아니고 잘못하면 무기를 들고 주인공에게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염승을 한 뒤에 삼신을 모셔놓은 곳을 보고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마지못해서 무애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고승들로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자체가 화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도 화두이고 이 몸통이 찰나찰나에 자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것도 화두입니다. 또 이 몸통으로 말하면 구멍뚫린 자루인데 그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우글거려서 돌아가는 이치도 화두입니다. 내



그림 · 최주현

"이 공부하는 붙들고 하는게 아니라 믿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공부 생각나는대로 되놓는 것이지요"

오늘부터라도 '병도 거기서 나온 거나 내 몸통이 내가 안 아프게 해서 끌고 다녀' 하고 놓는다면 아마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좌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입선이니 하는 것이 따르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자체가 참선입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질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화두를 제쳐놓고 남이 준 화두를 들고 앉았는 것을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몸을 이렇게 형성시켜서 움직여가게 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것을 지켜보는 게 첫째가 아닐까요? 그것조차도 뛰어 넘어서 나를 형성시켜 여기까지 끌고온 주인공이 있을테니 일체를 내 뜻이 아니라 주인공의 뜻으로 돌려놓고 되는 것 안되는 것 따지지 않고 몰고 들어가는 것이 이 바쁜 세상에 뛰면서 공부하는 길입니다. 다 놓고 뛰면 무기에 빠질까봐도 없고 무애행이니 뭐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계없이 관하는 도리

문 뚜렷한 경계가 없을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럴 때는 관이 활발하지 못한다 이런데 보고 듣는 이가 누구인지 관하면 되는 건가요? 또 스님 말씀중에 시간이 날때 '주인공 너만이 너를 보여줄 수 있어'하고 관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는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있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 이 공부는 서두르다고 되는 공부 가 아닙니다. 한번 반야줄을 쥐었으면 더디다 이리다, 잘된다 안된다의 생각까지도 거기에 놓고 관하세요. 앉아서 누울 때나 말할 때나 어느 때든, 무엇을 하든 놓고 관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공에 놓고 말기는 방법

문 이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런 질문은 '주인공' 이세상 살면서 드는 모든 고민들 다 네가 말해 해결할거면 하고 말려면 말고, 다 너 알아서 해! ...이래도 잘 하는 것입니까? 스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답 이왕 놓고 말해서 이 공부 하실 요량이면 놓고 말한다는 생각까지 물려 놓으세요. 절대로 물려서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 사무치는 마음이라야 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인연에 착두지 말라는 뜻

문 스님 말씀중에 '인연은 저버리지 말고 착은 두지 말거라'하신 내용이 있는데 중생계에 사는 삶으로서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일면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넘어야 할 경계이겠지만 스승님의 한말씀 듣고자 합니다.
답 무엇이 탈이나 하면 '나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타입니다. 그것만 빠지면 오는 인연 막

을 일도 없고 가는 인연 잡을 것도 없지요.

안팎으로 내게 다가오는 경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지않는 상태에...

문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름 "나는 누구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계속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보면 그런 상태가 가끔되곤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평온

놓으면 인과도 녹습니다

문 스님 법문 속에서 인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인공에 모두 놓으면 된다, 일념동방정이라고 해서 주인공한테 맡기면 인과 자체도 다 멀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확인과 과와 불매인과에 대해서 저는 중전에 불확인과라고 알아왔습니다. 법력 높으신 도인들께서도 인과는 오도 인과를 받지 않는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경계와 대상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과는 오도 인과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옛 선사를 법문집에서 보니 그게 그렇지 않다고, 불매인과, 도인이나 법력이 높으신 분들도 인과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께에서 주인공에 맡기면 모든 인과가

놓으면 인과도 녹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깨달아 발견한 데서 불이 아닌 도리를 알고, 불이 아닌 나뭇을 알게 됐을 때는 아무 것을 들이대도 손색이 나질 않아요. 아무 것을 들이대도 공안 아닌 게 없고, 화두 아닌 게 없고, 불행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들이대도 손색이 없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걸 말없이 말하지 못하니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또 질문 좀더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공기주머니에서 이탈하

'나다' '내가했다' '내것이다' 그제 탈입니다 마음심봉 깨끗치 않으면 맺돌 건성 돌아

합니다. 제대로 수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수면이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칩니다.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맑아지지 않아야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맑아지기 전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칩니다. 맑은공부는 내가 죽어 나를 보는 도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유의법에 '나'라고 고정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체를 놓고 관하는 가운데 참나를 발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돈·명예·이익에 대해

문 이번엔 드릴 질문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익도 좋지만 살다보면 돈이나 명예같은 이익을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분수에 맞게 추구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나'라는 이에게 물게 되는 것도 한마음 주인공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쩌하다 보니 질문이 아닌건 같기도 돼버렸지만, 스님께 말씀듣고 확인하고 싶고 틀렸다면 고치고 싶습니다.
답 아직은 나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라는 이에게 물게 되는 것도 한마음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한다면 그건 사치이죠. 이 도리는 머리를 굴려서 터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무조건하고 놓고 말하고 관하는 거기에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다 녹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답 의심이 그렇게 감니까. 물론 불락이다 하면 불락이 올겁니다. 이걸 떠나다 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색과 공이 들어 있는 소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불매라고 했느냐 하면 모두가 하나하나가 때고 놓고 두고 놓고, 실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게 없으니 이것이 다가오는 대로 내가 나와 들어 아닌 까닭에 그것은 온다, 안 온다, 불락이다, 불매다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 여여함이 그대로 불매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생사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불매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불락이라고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여우똥을 쓰고서 5백년이나 1초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여우똥을 살든지, 누대똥을 살든지, 구더기의 똥을 살든지 선 지식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이 거기에요 해당되듯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했거든요.

지렁이 밧도 내 밧이요, 하다 못해 메뚜기 밧도 내 밧이요, 인간의 밧도 전부 내 밧이요, 내 아픔이고, 내 몸이고, 내 자리가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정에서든지 자

가 가정에서는 가정이 제일 높은 겁니다. 뱃사공은 뱃사공대로 높고,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높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높은 것입니다. 산과 들을 보십시오. 전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낫다고 합니다. 호박꽃도 꽃이라고 자기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 범위 내에서는 다 높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매다 불락이다 하는 것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색공이 들어 아닌 까닭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진출과 전진출이 한 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오지요. 불이 들어왔으면 불만 들어왔지 그 양면의 전진출 가설이 된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설이 됐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禪)이라는 건 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그 가설된 전진출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진출과 불이 들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제 그릇이 비었는지 궁금

문 스님 법문 자주 듣고 많은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한테 여쭙보고 싶고 또 제가 내보이고 싶은 것은 사실 저라고 해답이 뭐가 될 것 없습니까. 제가 그릇을 올려놓고 이 그릇이 빈 것인지 찬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화두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책을 보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른 건지, 또 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떠한 바람을 제가 대했을 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싶어서 그 말씀 들었습니다.

답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깨달아 발견한 데서 불이 아닌 도리를 알고, 불이 아닌 나뭇을 알게 됐을 때는 아무 것을 들이대도 손색이 나질 않아요. 아무 것을 들이대도 공안 아닌 게 없고, 화두 아닌 게 없고, 불행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들이대도 손색이 없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걸 말없이 말하지 못하니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또 질문 좀더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공기주머니에서 이탈하

람도 이 마음의 중심에서 이탈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막 돌아가지요. 그리고 따뜻하지도 못하고 추위지나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모두가 이러한 이치로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서 이탈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불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요, 태양열이 들어가지 않아서 파도로 인해서 모든 게 돌아가면서 생명이 살고 있고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에서 심봉이 깨끗하게 서질 못하면 맺돌이 돌아가질 않듯이 이탈이 되면 심봉이 있는데도 맺돌이 건성 돌아가지고 걸려 가게 돼 있지요. 그리고 돌아가지도 않고요. 이런 까닭에 우리 이 마음 자체, 지구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양 번두리에 한 속성이 있어서 그 속성을 기준해서 살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에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세포가 있는데, 모든 사대에 피를 조달하고, 통신을 하고 여기를 탁 치면 벌써 두뇌로 해서 사대로 아픔의 신호가 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하나 하나 똑 같습니다. 지구에도 세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통신 조달은 바로 오존층에서 할 수 있고, 일출할 수 있고, 오게 할 수 있고, 숨게 할 수 있고, 덩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지요.

누가 오늘 범회날인데 비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도요. 그러나 이 선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알고 싶으면 마는 것이 선법이에요. 자기가 얇은 소견으로 그냥 하고 싶고, 안하고 싶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에 해답이 돼야 합니다. 개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포괄적인 하나로 해서 해답이 되고 생각 자체가 그냥 법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오늘 범회에 비가 와서 걱정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 여러분이 철저하고 포교를 해서 그런 장애인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되고, 장애인이 나온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과거로부터,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나, 인과성이나, 영계성이나, 세운성이나 해서 이게 포함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온 그 자리에서 되놓으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전체입니다. 얼마나 생들을 합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쓰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생각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남편이 술을 먹고

협찬 한마음